

ICAS 정책이슈&진단 | 18-04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CONTENTS

- I . 노년기 근로 참여 지원의 필요성
- II . 중 · 장년 및 노인을 위한 근로 지원 정책
- III .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욕구
- IV . 논의 및 정책적 제언

연구명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자	양지훈(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하석철(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서종수(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초빙연구원) 김혜지(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초빙연구원)
작성자	양지훈(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ICAS 정책이슈&진단은 센터 홈페이지(www.inlife.or.kr)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중·장년 및 노인을 위한 근로 지원 정책

- 근로 지원 정책은 크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나타남.
- 중·장년 및 노인을 위한 근로 지원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는 ‘시니어클럽/노인인력개발센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사업 운영기관’, ‘이모작지원센터’가 있음.

○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욕구

- 희망하는 평균 은퇴연령은 71.79세로, 연소노인 시기까지 일하려는 비율은 경제적 목적 집단이 92.4%, 비경제적 목적 집단은 90.5%였음.
- 두 집단 모두 가장 중요한 노년기 근로조건으로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을 꼽음.
- 경제적 목적 집단은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의 비율이 31.0%로 가장 많은 반면, 비경제적 목적 집단은 사무직이 32.1%로 가장 많았음.
-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은 경제적 준비였으며, 경제적 목적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논의 및 정책적 제언

- 연령 단계별 사회참여 프로세스 구축
-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 조성
- 직업훈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1. 노년기 근로 참여 지원의 필요성

- 현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약 3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각 년도). 또한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질 은퇴연령이 65.2세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72.0세로 회원국 중 가장 연령이 높았음(OECD, 2017).
- 2017년 인천시의 노인인구 505천 명 가운데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은 200천 명으로, 39.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과반수는 노년기 근로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고승연·홍유림, 2017; 김수영·장수지·이재정·문경주, 2015; 황미영, 2011), 노인이 된 후에도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하려는 경향을 보임(윤민석, 2015).
- 근로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고, 향후 근로에 참여할 의향을 지닌 중·장년이 많다는 것은 노인의 근로 지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함.
- 특히 인천시의 노인 비율은 11.8%로 7대 도시 중 두 번째로 낮지만 베이비부머¹⁾ 비율은 전기 14.0%, 후기 19.3%로 두 번째로 높아 노인 인구 증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또한 노년기 근로는 개인적·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활동임.
 - 개인적 측면에서 노년기 근로는 자아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 심리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의 증진과 개선, 사회참여와 인적 교류를 통한 재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도우며, 불충분한 경제적 노후준비로 인한 빈곤을 보완하는 활동이 됨(김수영 외, 2015; 안서연·이현주, 2015; 윤민석, 2015; 이윤진·김남숙·기영화·홍성화, 2013).
 - 사회적 측면에서 노년기 근로는 소득보장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 등 사회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음(김용태, 2013; Mayhew & Rijkers, 2004). 또한 일하는 노인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됨(고승연·홍유림, 2017).

1) 통계청에서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를 1차 베이비부머, 1968년에서 1974년 사이 출생자를 2차 베이비부머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계출산율 3.0 이상의 인구집단도 동일한 베이비부머 코호트로 봐야 한다는 김용하와 임성은(2011)의 주장에 따라 연령 누락이 없도록 인구집단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64년에서 1974년 사이 출생자로 정의하였음.



- 인천시는 2015년 제정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서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인천의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인천시 또는 구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어 노인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평가대회에서 인력파견형사업 최우수상 등 5개 부분에서 수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실적(한국 노인인력개발원, 2018)에서 7대 도시 중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고, 세 번째로 일자리 참여자가 높음.
- 이처럼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시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일자는 베이비부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가 되어야 함.
 - 베이비부머는 부족한 소득보충과 노후 의료비 부담 불안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소득 창출을 희망하는 한편, 능력발휘나 경력활동의 일환으로 근로에 참여하고자 함.
 - 다양한 근로욕구에 맞춘 일자리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집단 특성과 근로 욕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은 진행 중이며, 기존에 조사된 결과가 없어 베이비부머의 특성 및 근로욕구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준비 중인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베이비부머의 근로욕구를 파악하고, 현재 정책 및 서비스에서의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중·장년 및 노인을 위한 근로 지원 정책

- 현재 근로지원정책은 대부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년부터 노인까지의 근로 지원 정책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또한 베이비부머의 선두세대인 1955년 출생자의 경우 현재 노인을 위한 근로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근로 지원과 관련한 주요 조항이 포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음.

〈표 1〉 근로 지원 관련 법령

법령	근로 지원과 관련한 주요 조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장(정년): 정년퇴직자 재고용, 구직, 정년연장 등
고용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 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고용정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노후준비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지방정부의 근로 관련 조례는 크게 노인복지관련 조례, 고령친화도시조성, 고령사회대응, 노인사회활동지원, 일자리창출 · 지원, 인생이모작지원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서울과 경기는 중 · 장년 근로 관련 전담부서가 있으며, 전담부서가 없는 자자체에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련)과나 노인복지(관련)과에서 운영되고 있었음.
- 근로 지원 정책은 크게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나타나며, 이 중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한 것이 ‘고령화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과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임.
- 지방정부 차원에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고용정책은 서울특별시의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의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이 있음.
- 대부분의 부처가 중 · 장년 및 노인을 위한 근로 지원 정책을 전달하고 있으나, 그 중 주요 부처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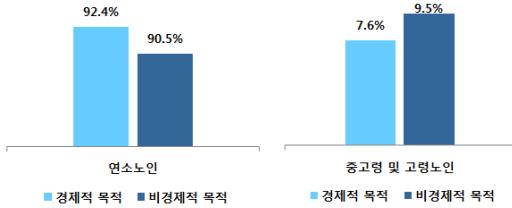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의 주요 서비스: 고령자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 사회공헌활동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 보건복지부의 주요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중·장년 및 노인을 위한 근로 지원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시니어클럽/노인인력개발센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사업 운영기관’, ‘이모작지원센터’는 전국에 298개소가 있음.
 - 이 중 인천시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9개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3개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기관 1개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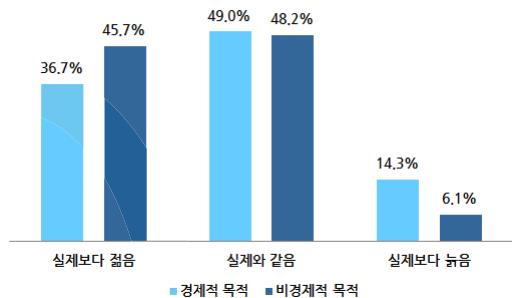
3.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욕구

-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원시자료 가운데 만 65세 이후 근로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현재 취업상태인 베이비부머 622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년기 근로 참여 목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50.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노년기 생계를 위해(27.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을 위해(6.4%)’,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해서(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를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비경제적 목적(66.2%)의 노년기 근로 참여 의사가 경제적 목적(33.8%)보다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73.4%는 남성이었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비경제적 목적으로 노년기 근로를 희망하였음.
- 인천시 군구 중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은 경제적 목적보다 비경제적 목적으로 노년기 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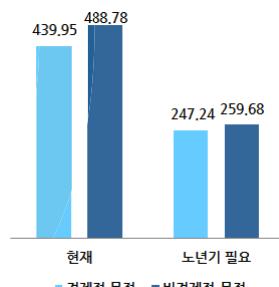
- 희망하는 평균 은퇴연령은 71.79세임.
- 연소노인 시기까지 일하려는 비율은 경제적 목적 집단이 92.4%, 비경제적 목적 집단은 90.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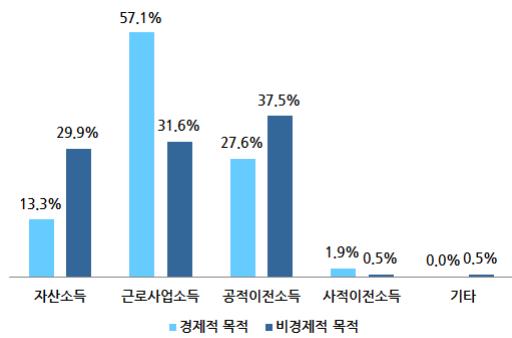
- 연령정체감을 보면 대부분 실제 나이와 같다고 응답하였으나(48.5%), 경제적 목적 집단(36.7%)보다 비경제적 목적 집단(45.7%)이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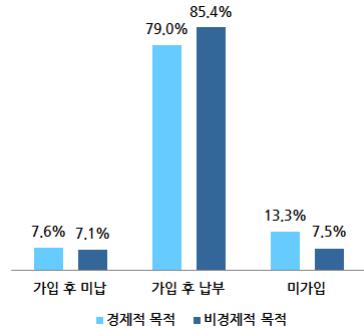
- 현재 월 평균 가구소득은 경제적 목적 집단이 439.95만 원, 비경제적 목적 집단은 488.78만 원이었으며, 노년기 필요로 한 월 평균 가구소득은 경제적 목적 집단이 247.24만 원, 비경제적 목적 집단은 259.63만 원으로 두 항목 모두 비목적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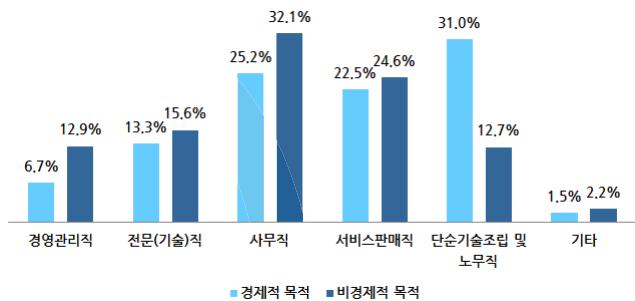
- 경제적 목적 집단은 근로사업소득을 통한 노년기 소득 창출이 57.1%로 가장 높은 반면, 비경제적 목적 집단은 공적이전소득(37.5%)이 가장 높았으며, 근로사업소득(31.6%), 자산소득(29.9%)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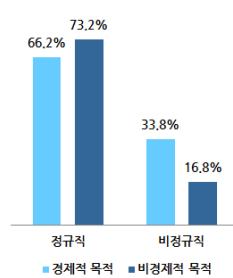
-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는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목적 집단은 비경제적 목적 집단보다 공적연금 미가입 상태 비율 또한 5.8%p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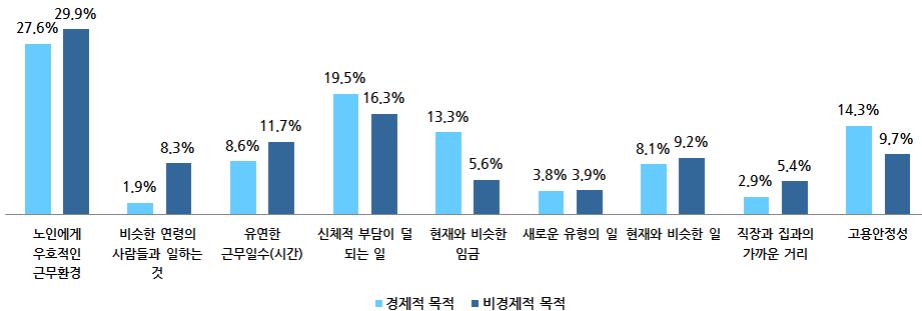
- 경제적 목적 집단은 단순기술 조립 및 노무직의 비율이 31.0%로 가장 많은 반면, 비경제적 목적 집단은 사무직이 32.1%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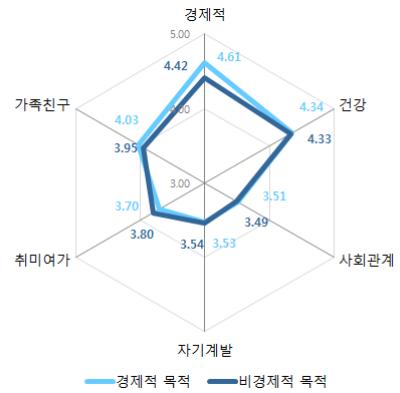
- 고용형태는 두 집단 모두 정규직이 가장 많았으나 (27.4%), 비경제적 목적 집단에 비해 경제적 목적 집단에서 비정규직 및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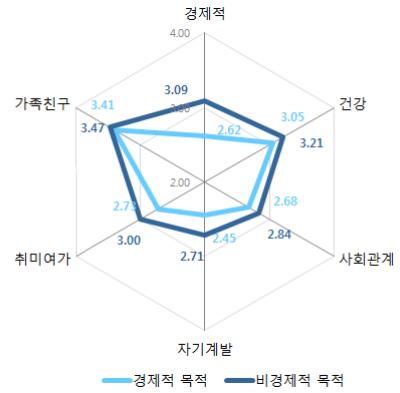
- 두 집단 모두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을 가장 중요한 노년기 근로 조건으로 꼽았음(경제적 목적 집단 27.6%, 비경제적 목적 집단 29.9%).



-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은 경제적 준비였으며, 경제적 목적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노후준비도는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을 제외하고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영역에서 비경제적 목적 집단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4. 논의 및 정책적 제언

1) 연령 단계별 사회참여 프로세스 구축

- 본 연구의 결과에서 노년기 근로 지속 연령은 평균 71.8세, 75세까지의 누적 비율은 약 91.1%임(경제적 목적: 92.4%, 비경제적 목적: 90.5%).
- 그러나 현재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묾.
-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활동적 노후를 보장하고 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예시로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참여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 조성

- 노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환경이 노인에게 우호적일 필요가 있음.
실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노년기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29.1%)이었음.
-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은 무장애 환경(Barrier free)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과 동료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물리적 환경은 노인이 근로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근무지의 환경을 고령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design)와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초한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인 우호적인 근무환경이 단순히 근무지에 대한 환경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고령친화적 요인(교통시설, 보행환경 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 사회적 환경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연령 및 계층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인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의 진입이 용이하고 신규 노인의 비중이 큰 일자리의 경우 수평적인 조직(flat organization)의 형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비중이 크지 않은 조직의 경우에는 노인이 새로운 일자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현재 생애 주요 일자리에서 근무 중인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 개선이 수행되어야 함.
 - 고령근로자들의 인식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의 근로의욕,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의미, 근로 태도 등 일반적 근로자들이 가지는 근로관련 의사와 고령자로서의 특성 등에 대해 자기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와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베이비부머의 이직과 노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직업 훈련과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기존의 단일적인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서 벗어나 현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임.
-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베이비부머는 기존 세대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업 유형을 경험하였으며, 교육 수준 또한 높음. 따라서 현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 및 조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적 요인을 목적으로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집단은 비경제적 요인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적 목적 집단은 주관적 경제 수준,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도, 노후 생활비 부담도, 현재 가구소득 충분도, 노후 가구소득 충분도에서 비경제적 목적 집단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임.
 - 직업의 경우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의 비율이 비경제적 목적 집단(12.7%)보다 경제적 목적 집단(31.0%)에서 더 크게 나타남.
 - 경제적 목적 집단에서 비정규직 비율(30.5%)과 일용직(3.3%)의 비율이 비경제적 집단(비정규직: 25.8%, 일용직: 1.0%) 보다 더 큰 모습을 보임.
- 또한 현재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은 자기계발(2.62점; 전체 평균: 2.98점) 영역이었으며, 경제적 목적의 근로 참여 의사 집단(2.45점)은 비경제적 집단(2.71점) 보다 해당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노후에 경제적 요인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욕구를 크게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준비는 잘 되지 않았음을 암시함.
 - 따라서 취약 집단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직업 훈련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함.
 - 이는 현재의 취약한 경제 상황이 노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접근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기업 등 베이비부머가 근로 중인 고용기관에서 이와 같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 제공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참고문헌

- 고승연 · 홍유림(2017). ‘일하는’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 김수영·장수자·이재정·문경주(2015). 베이비붐세대의 재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 연구, 67, 107–132.
- 김용태(2013). 노인의 근로의 권리. 법학논집, 18(2), 61–84.
- 윤민석(2015).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이윤진 · 김남숙 · 기영화 · 홍성화(2013).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은퇴 고령자 일 경험의 의미: Modified Grounded Theory. 職業敎育研究, 32(6), 133–15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 2017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황미영(2011). 고령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 욕구와 근로자지원의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155–178.
- Mayhew, k. & Rijkers, B. (2004). How to improve the human capital of older workers or sad tale of the magic Bullet. EC-OECD Seminar on Human Capital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 OECD. (2017).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Better Life Index. Contrived May, 4, 2018, <http://stats.oecd.org>.



ICAS 정책이슈&진단 (2018-04)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행인 : 원 미 정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TEL. 032-715-5491 FAX. 032-715-5319

인쇄처 : 아이시스컴(032-201-2044)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에 있음

